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의 측면에서 본 강박사고의 하위유형

김 기 환*

신 민 섭

권 석 만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이 강박사고의 두 유형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1에서는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 모두를 포함하는 사고-실재 융합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419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고-실재 융합척도는 자생성 차원에서 5개, 반응성 차원에서 4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기존 척도와의 공존타당도를 획득하였다. 연구 2에서는 사고-실재 융합이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와 차별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걱정, 우울과의 관계도 살펴보았다. 49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고-실재 융합척도, 강박적 침투사고 질문지-단축형, 우울증상 질문지, 걱정증상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박사고는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자생성보다 반응성 강박사고가 관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생성 강박사고의 경우에는 반영 사고-사건 융합,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 가능성 사고-사건 융합, 대처 사고-사건 융합의 순으로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반응성 강박사고의 경우에는 가능성 사고-사건 융합, 반영 사고-사건 융합, 대처 사고-사건 융합,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 그리고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의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걱정과 우울은 강박사고에 비해 사고-실재 융합에 대해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의의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고-행위 융합, 사고-사건 융합, 사고-실재 융합척도, 강박증상, 강박사고,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기환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Fax : 02)871-6033 / E-mail : petraneo@hanmail.net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며,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강박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박사고가 상대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이에 대해 인지행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Salkovskis(1985)는 강박장애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상적인 침투사고와 병리적인 강박사고에는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처리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즉, 침투적 사고들이 떠오르는 것은 정상인들도 겪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강박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침투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여 더 많은 처리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사고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Rachman(1993)은 ‘사고-행위 융합(thought-action fusion: TAF)’ 평가가 강박장애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고-행위 융합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믿음’이라고 정의내렸다. 사고-행위 융합은 도덕성 융합(moral fusion)과 가능성 융합(likelihood fusion)으로 나뉘며, 도덕성 융합은 ‘수용하기 힘든 침투사고를 가지는 것은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거의 같다는 믿음’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이다”라는 생각이다. 가능성 융합은 ‘원치 않고, 수용하기 힘든 침투사고를 가지는 것이 특정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이며, 다시 자기 가능성 융합과 타인 가능성 융합으로 나뉘어진다. 자기 가능성 융합은 불행한 사건이 자신과, 타인 가능성 융합은 타인과 연관된 것으로, 예를 들면

“자신(혹은 친척, 친구)이 병드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병에 걸릴 것 같다”와 같은 생각이다. 즉, 이렇게 사고와 행위가 융합되는 인지적인 평가과정으로 인해 침투적 사고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처리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인 사고-사건 융합(thought-event fusion: TEF)은 ‘강박적인 사고가 현실의 부정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거나, 이미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이다(Wells, 2000). 예를 들면 “내 생각은 현실이 될 거야”와 같은 생각이나,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치지 않았나하는 생각 때문에 온 길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행동과 관련된 생각이다. 사고-사건 융합은 Wells(1997)가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에 대한 설명모형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위인지 모형에서 나온 개념으로, 상위인지란 정보처리 과정의 측면에서 신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서, 개인의 사고활동이나 대처행동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Wells, 1997).

Shafran, Thordarson과 Rachman(1996)은 사고-행위 융합이 강박집단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타인 가능성 융합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타인가능성 융합은 강박행동 중 특히 확인행동과 가장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며 이러한 관련성은 우울을 통제하고도 나타났다. Amir, Freshman, Ramsey, Neary와 Bridige(2001)는 가능성 융합에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긍정 융합 문항을 포함하여 연구하였으며, 높은 강박점수를 나타내는 집단에서 타인가능성 융합과 자기가능성 융합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긍정가능성 융합도 강박성향 집단에서 더 높게 나왔지만, 도덕성 융합은 집단 간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Coles, Meinnin과 Heimberg(2001)의 경우에는 자기가능성, 타인가능성 그리고 도덕성 융합 모두 강박 특성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걱정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Rassin, Diepstraten, Merckelbach와 Muris(2001)는 사고-행위 융합이 사고 억제에 일으키며,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로 인해 강박사고가 유지된다고 하였다. Abramowitz, Whiteside, Lynam과 Kalsy(2003)는 강박증상과 가능성 융합의 연관성은 나타나지만, 도덕성 융합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특히 타인가능성 융합이 가장 병리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고-사건 융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으로, 이는 개념 자체가 최근에 제안되었으며 연구도 Wells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고-행위 융합은 전반적으로 강박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각 하위차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즉, 도덕성 융합의 경우 상반되는 결과들이 존재하며 다수의 경우에는 강박장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된다. 가능성 융합의 경우에는 강박장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타인 가능성 융합이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그 동안의 사고-행위 융합 연구들을 개관한 Berle와 Starcevic(2005)의 연구에서는 사고-행위 융합과 강박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고-행위 융합이 다른 불안장애들, 우울증, 섭식장애, 그리고 정신증적 장애와도 관련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고-행위 융합과 관련이 있는 강박장애와 그렇지 않은 강박장애로 나눌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고 혼잡한 연구결과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강박장애는 다양한 증상과 기저 메커니즘을 가진 이질적인 병리집단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진단기준에서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나타낸다는 기준 안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등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강박장애의 하위유형 구분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으며, Lee와 Kwon(2003)은 강박사고를 그 내용에 따라서 자생성(autogenous)과 반응성(reactive)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질성을 고려하였다. 기존의 구분들 대부분이 침투사고의 경험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인지적 평가차원이나 통제방략 또는 구체적인 강박행동에 의해 하위유형을 나눈 것에 비해, 이들은 침투사고라는 자극 자체의 속성에 따라 나누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강박사고가 강박행동에 선행하고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강박사고의 속성에 따른 구분은 강박장애에 대한 더욱 근원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먼저 자생성 강박사고는 사고를 유발시킨 자극의 확인이 어렵고 자아이질성이 높으며 자동적 사고와의 구별이 용이하다. 사고내용의 전형적인 예는 성적, 공격적, 신성모독적, 그리고 혐오적인 내용들이고 주로 드러나지 않고 회피적인 강박사고, 반추 등을 통제방략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 불현듯 음탕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를 없애기 위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반응성 강박사고는 사고를 유발시킨 자극의 확인이 비교적 쉽고 자아이질성이 낮으며 자동적 사고와의 구별이 어렵

다고 한다. 사고내용의 전형적인 예는 오염, 실수, 사고, 비대칭에 관한 것이고 주로 드러나며 직면적인 씻기, 확인행동, 정돈, 축적 등을 통제방략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기존 연구들 중에는 하위유형을 고려하여 강박증상과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으며, 이순희(2000)와 설순호(2004)가 자생성 및 반응성 모형에 따라 강박사고를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두 연구에서 사고-행위 융합의 하위차원과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간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의 개념과 하위차원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연구들에서는 두 개념들이 서로 혼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Rachman(1993)의 사고-행위 융합의 경우, 도덕성 융합은 ‘사고’와 ‘행위’의 융합을 의미하지만(예: 폭력적인 생각을 하면, 폭력행동을 하는 것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다), 가능성 융합은 실제로는 ‘사고’와 ‘사건’의 융합을 의미한다(예: 나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내가 차사고를 당할 것 같다). ‘행위’와 ‘사건’은 주체의 ‘의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체가 의지를 가질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예: 야구공을 던지는 행위는 나의 의지에 따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의 경우에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예: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을 때 내 의지로 그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Rachman(1993)의 가능성 융합은 실제로는 사고-사건 융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Wells(2000, 2001, 2004)는 이러한 행위와 사건의 차

이를 구분하여 사고-행위 융합을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원치 않는 행동을 저지르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내리고 있다(예: 내가 자해를 하는 생각을 하면, 결국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융합의 개념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연구결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혼동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두 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척도는 Shafran 등(1996)이 만든 사고-행위 융합척도(Thought-Action Fusion Scale: TAFS)와 Wells(2001)가 만든 사고융합척도(Thought Fusion Instrument: TFI)가 있다. 그러나 사고-행위 융합척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고-사건 융합의 개념이 혼용되어 있으며, 사고융합척도의 경우에는 도덕성 융합이 빠져있다. 그리고 두 척도의 문항들은 대인관계, 사고, 실직, 질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성적, 공격적인 내용이나 오염, 확인과 같이 실제로 강박증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강박장애 연구에 있어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연구자는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이 강박장애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 이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강박장애의 하위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강박장애라는 심리적 장애와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이라는 심리적 구성개념과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강박사고에 대한 자생성/반응성 모형을 도입하였다. 이 모형에 따라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경험적 지지기반을 얻어가고 있는

자생성/반응성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의 개념과 하위차원을 명확히 구분하며, 보다 직접적인 강박사고 내용들을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두 가지 융합들이 강박사고와 관련성을 가지는지, 또한 강박사고의 두 하위유형들에 따라 차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걱정, 우울이 두 융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 1. 사고-실재 융합척도 (Thought-Reality Fusion Scale: TRFS)의 개발

앞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기존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두 가지 융합의 개념과 하위차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내용이 사고와 실제로 나타나는 행위, 사건 간의 융합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사고-실재 융합척도(Thought-Reality Fusion Scale: TRFS)로 명명하였다. 문항들은 강박사고의 내용에 따라 크게는 자생성과 반응성으로 구분되며, 자생성에는 성적, 폭력적 내용이 포함되고 반응성에는 오염, 확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총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4가지의 유형 각각에는 개념의 정의에 따라 구분되는 융합의 9가지 하위차원을 반영하는 문항이 두 개씩 포함된다. 융합의 9개 하위차원은 크게는 2개 혹은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이라는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에는 도덕성 TAF, 가능성 TAF, 후자에는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의 하위차원이 포함

된다. 도덕성 TAF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같다는 믿음’이며, 가능성 TAF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사고-사건 융합의 경우에는 설순호(200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능성 TEF 외에 반영 TEF와 대처 TEF도 포함하였다. 가능성 TEF는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경우와 타인에게 일어날 경우로 나누어진다. 반영 TEF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으로 역시 자기 또는 타인 융합으로 나누어진다. 자기반영 TEF는 자신이 타인이나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경우와, 타인, 주변환경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 때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 ‘자기 능동반영’ TEF와 ‘자기수동반영’ TEF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처 TEF는 ‘생각하는 것이 현실의 부정적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존 척도에서 삭제되었던 긍정융합과 유사한 개념이다. 역시 자기 융합과 타인 융합으로 나뉜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하위차원들은 사고-행위/사고-사건 융합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인지적인 측면에서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세분하였다. 예를 들어 가능성 사고-사건 융합은 다소 비합리적인 마술적 사고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대처 사고-사건 융합은 걱정하기(worrying)의 유용성에 대한 신념, 반영 사고-사건 융합은 자신의 기억에 대한 인지적인 자신감의 부족과 관련이 되는 등 각각이 가지는 임상적인 시사점도 다르다고 생각된다.

문항의 구성은 사고-행위 융합척도, 사고-행

표 1. 사고-실재 융합의 하위차원, 정의 및 해당문항의 예

개념	하위차원	정의	해당문항(자생성 중 성적 사고)
사고 행위 융합 (TAF)	도덕성 TAF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같다는 믿음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만큼이나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다.
	가능성 TAF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내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고 사건 융합 (TEF)	가능성 TEF	자기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타인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타인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나의 가족(또는 친구)이 성추행을 당하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반영 TEF	자기 능동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한 일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
		자기 수동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 자신이 수동적으로 당한 일	내가 성추행을 당하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
	대처 TEF	타인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	나의 가족(또는 친구)이 성추행을 당하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부정적 결과를 막을 것이라는 믿음	성추행을 당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타인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부정적 결과를 막을 것이라는 믿음	나의 가족(또는 친구)이 성추행을 당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합척도, 강박침투사고 질문지(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ROII) 등을 참고하였으며, 각 개념들의 정의와 해당 문항들은 표 1에 정리하였다. 총 72문항이며, 각 문항에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고-실재 융

합척도가 어떻게 요인 구조를 가지는지, 그리고 공존타당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41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남자가 218명, 여자가 201명이었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1.21세(표준 편차 2.412)이었다.

도 구

사고-행위 융합척도(Thought-Action Fusion Scale, TAFS).

Shafraan 등(1996)이 개발한 19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TAF-Moral) 12문항, 자기와 관련된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TAF-Likelihood-for-self) 3문항, 타인과 관련된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TAF-Likelihood-for-others) 4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된다. 이순희(2000)가 번안하였고 Cronbach α 를 구한 결과 총 19개 문항에 대해 $\alpha=.92$,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의 12개 문항의 경우에는 $\alpha=.92$,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의 7개 문항의 경우에는 $\alpha=.91$ 이었다.

결과 및 논의

사고-실재 융합척도(Thought-Reality Fusion Scale: TRFS)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개념의 정의에

따라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 자기가능성 사고-사건 융합, 타인가능성 사고-사건 융합, 자기능동반영 사고-사건 융합, 자기수동반영 사고-사건 융합, 타인반영 사고-사건 융합, 자기대처 사고-사건 융합, 타인대처 사고-사건 융합의 9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문항의 내용은 4가지의 강박사고를 반영하며, 한 종류의 강박사고를 나타내는 하위차원에 2문항씩 포함되어 총 7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TRFS의 요인구조

TRFS의 9개 하위 차원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자생성(성, 공격)과 반응성(오염, 확인)으로 나누어 각각 하위차원 점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 우도 방법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였고, 사각 회전 방법(direct oblimin, $\delta=0$)으로 회전하였다. 정의에 따라 하위차원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의 개수를 5개로 지정하였다.

우선 자생성 내용의 하위차원들은 표 2와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5요인 구조로 나뉘었다. 요인 1에서는 타인가능성 TEF(공격), 타인가능성 TEF(성), 자기가능성 TEF(공격), 자기가능성 TEF(성)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7.40에 전체 변량 중 41.1%를 설명하였다. 포함되는 하위차원을 고려하여 요인의 이름을 ‘가능성 TEF’로 정하였다. 요인 2에는 가능성 TAF(성), 가능성 TAF(공격)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1.09에 전체 변량 중 6.0%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가능성 TAF’로 정하였다. 요인 3에는 자기대처 TEF(성), 자기대처 TEF(공격), 타인대

표 2. 사고-실재 융합척도 자생성 하위차원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차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타인가능성 TEF(공격)	.844	.447	.454	.349	.573
타인가능성 TEF(성)	.769	.478	.419	.293	.545
자기가능성 TEF(공격)	.751	.410	.461	.385	.478
자기가능성 TEF(성)	.629	.449	.498	.239	.731
가능성 TAF(성)	.431	.955	.396	.353	.393
가능성 TAF(공격)	.512	.621	.368	.380	.420
자기대처 TEF(성)	.413	.360	.854	.220	.387
자기대처 TEF(공격)	.431	.342	.797	.248	.369
타인대처 TEF(성)	.420	.393	.760	.271	.355
타인대처 TEF(공격)	.419	.316	.622	.182	.215
도덕성 TAF(성)	.280	.259	.173	.796	.162
도덕성 TAF(공격)	.359	.423	.303	.794	.333
자기수동반영 TEF(성)	.531	.396	.358	.247	.822
타인반영 TEF(공격)	.645	.500	.478	.379	.785
자기수동반영 TEF(공격)	.738	.519	.463	.394	.738
타인반영 TEF(성)	.699	.551	.444	.314	.623
자기능동반영 TEF(성)	.553	.593	.316	.539	.619
자기능동반영 TEF(공격)	.598	.460	.292	.449	.527
요인고유치	7.40	1.09	1.26	.98	.47
설명변량	41.12	6.04	7.02	5.46	2.62

처 TEF(성), 타인대처 TEF(공격)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1.26에 전체 변량 중 7.0%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대처 TEF’로 정하였다. 요인 4에는 도덕성 TAF(성), 도덕성 TAF(공격)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98에 전체 변량 중 5.5%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도덕성 TAF’로 정하였다. 요인 5에는 자기수동반영 TEF(성), 타인반영 TEF(공격), 자기수동반영 TEF(공격), 타인반영 TEF(성), 자기능동반영 TEF(성), 자기능동반영 TEF(공격)이 포함되었으

며, 고유치 .47에 전체 변량 중 2.6%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반영 TEF’로 정하였다. 즉, 자생성 강박사고를 포함하는 하위차원들에서 도덕성 TAF, 가능성 TAF,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로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변량 설명력은 62.3%이며 χ^2 은 260.91($df=73$, $p<.001$)이었다.

다음으로 반응성 내용의 하위차원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4요인 구조로 나뉘었다(표 3). 요인 1에서는 자기가능성 TEF(오염), 타인가능성

표 3. 사고-실재 융합척도 반응성 하위차원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차원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자기가능성 TEF(오염)	.814	.532	.366	.628
타인가능성 TEF(확인)	.789	.407	.415	.704
자기가능성 TEF(확인)	.787	.446	.397	.630
타인가능성 TEF(오염)	.776	.334	.326	.499
자기대처 TEF(확인)	.400	.848	.376	.437
타인대처 TEF(오염)	.426	.826	.420	.399
자기대처 TEF(오염)	.511	.782	.385	.356
타인대처 TEF(확인)	.297	.670	.517	.361
타인반영 TEF(확인)	.693	.398	.402	.962
자기능동반영 TEF(확인)	.655	.473	.429	.675
자기수동반영 TEF(확인)	.779	.400	.392	.626
자기수동반영 TEF(오염)	.802	.482	.307	.613
자기능동반영 TEF(오염)	.651	.365	.410	.598
타인반영 TEF(오염)	.770	.343	.429	.546
도덕성 TAF(확인)	.336	.333	.793	.340
도덕성 TAF(오염)	.366	.479	.734	.411
가능성 TAF(확인)	.435	.660	.626	.491
가능성 TAF(오염)	.436	.505	.573	.422
요인고유치	8.30	1.52	.82	.74
설명변량	46.12	8.44	4.56	4.14

TEF(확인), 자기가능성 TEF(확인), 타인가능성 TEF(오염)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8.30에 전체 변량 중 46.1%를 설명하였다. 포함된 하위차원을 고려하여 요인의 이름을 ‘가능성 TEF’로 정하였다. 요인 2는 자기대처 TEF(확인), 타인대처 TEF(오염), 자기대처 TEF(오염), 타인대처 TEF(확인)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1.52에 전체 변량 중 8.4%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대처 TEF’로 정하였다. 요인 3은 도덕성 TAF(확인), 도덕성 TAF(오염), 가능성 TAF(확인),

가능성 TAF(오염)를 포함하며, 고유치 0.82에 전체 변량 중 4.6%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TAF’로 정하였다. 요인 4에는 타인반영 TEF(확인), 자기능동반영 TEF(확인), 자기수동반영 TEF(확인), 자기수동반영 TEF(오염), 자기능동반영 TEF(오염), 타인반영 TEF(오염)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 .74에 전체 변량 중 4.1%를 설명하였다. 요인의 이름을 ‘반영 TEF’로 정하였다. 즉, 반응성 강박사고를 포함하는 하위차원들에서는 도덕성 TAF, 가능성 TAF가

한 요인이 되며 나머지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를 포함하는 전체 4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변량 설명력은 63.3%이며 χ^2 은 214.41($df=73$, $p<.001$)이었다.

TRFS의 신뢰도

TRFS의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 α 를 계산하였다. 문항의 내용별로는 자생성과 반응성 차원이 각각 .94와 .95로 나타나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요인별로는 자생성 차원에서는 도덕성 TAF, 가능성 TAF,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가 각각 .81, .81, .86, .90, .87의 Cronbach α 를 나타내었으며, 반응성 차원에서는 TAF,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가 각각 .84, .88, .90, .89의 Cronbach α 를 나타내었다. 연구 1에 참여한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85명(남자 43명, 여자 42명), 평균 연령은 20.61세(표준편차 1.98세, 범위 18 ~ 30세)였다. TRFS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문항에 대해 .75로 나타났으며, 자생성과 반응성 차원은 각각 .73과 .78로 나타났으며, 자생성의 5가지 요인은 .71에서 .77로, 반응성의 4가지 요인은 .73에서 .82로 나타나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특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TRFS와 TAFS와의 관계

연구 1의 참가자 419명에게서 얻어진 두 질문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TRFS 점수의 평균은 29.65, 표준편차는 24.02이었다. TRFS 자생성의 점수는 평균이

표 4. TRFS와 TAFS의 평균과 표준편차

질문지	평균	표준편차
TRFS	29.65	24.02
TRFS 자생성	12.59	11.27
도덕성 TAF	2.30	2.27
가능성 TAF	1.82	2.04
가능성 TEF	2.66	2.96
반영 TEF	2.94	3.96
대처 TEF	2.88	3.37
TRFS 반응성	17.06	13.73
TAF	3.84	3.46
가능성 TEF	3.46	3.56
반영 TEF	4.30	4.78
대처 TEF	5.47	4.48
TAFS	21.64	13.79
도덕성 TAF	16.30	10.68
자기가능성 TAF	2.60	2.49
타인가능성 TAF	2.75	2.91

TRFS: 사고-실재 융합척도, TAFS: 사고-행위 융합척도

12.59, 표준편차는 11.27이었으며, TRFS 반응성의 점수는 평균이 17.06, 표준편차는 13.73으로 자생성 점수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TRFS의 공준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척도인 TAFS와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TRFS와 TAFS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고($r=.20 \sim r=.66$, $p<.001$), 총점간의 상관은 .5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RFS의 자생성 총점과 반응성 총점이 TAFS의 총점과 가지는 상관은 각각 .51과 .5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생성의 도덕성 TAF는 TAFS의 도덕성 TAF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r=.63$, $p<.001$), TRFS의 가

능성 TEF는 기존 TAFS의 가능성 TAF와 동일한 개념으로 자생성과 반응성 차원 모두에서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r=.57 \sim r=.66, p<.001$) 공존타당도를 나타내었다.

연구 2.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의 사고-실재 융합과의 관련성

연구 2에서는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이 강박사고와 실제로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어떤 하위 차원과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볼려한다. 그리고 강박사고의 하위유형에 따라 그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 만들어진 TRFS를 사용할 것이며, 두 융합이 강박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걱정, 우울과도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게 강박사고와 두 융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능성 TEF 중 타인가능성 TEF와의 상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 TEF는 기존의 사고-행위 융합척도의 가능성 TAF와 같은 개념이며, 특히 타인가능성 TAF가 강박증상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Shafran et al., 1996; Abramowitz et al., 2003). 도덕성 TAF의 경우에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존재하므로 강박사고의 하위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타인융합이 자기융합보다 강박증상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를 참고하면, 타인반영 TEF, 타인대처 TEF가 강박사고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강박사고를 자생성과 반응성으로 나누었을

때는 융합의 각 차원과 차별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으므로 가설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탐색적인 연구가 요구되었다. 자생성 사고에는 성, 공격 등의 사고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행위로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행동을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유사하다는 도덕성 TAF와,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 TAF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응성 사고에서는 설순호(2004)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영 TEF와 대처 TEF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순희(200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능성 TEF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에 관련된 반영 TEF의 경우에는 오염, 확인의 반응성 사고내용이 사고나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되므로 자기수동반영 TEF가 자기능동반영 TEF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걱정은 반응성 강박사고와 더 비슷한 속성들을 가진다는 기존 연구들(민병배, 2000; 설순호, 2004)이 존재하므로, 융합과의 상관의 패턴이 반응성 강박사고와 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낮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처 TEF가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유사한 개념이므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울은 사고-실재 융합과는 낮은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2의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 1. 사고-실재 융합의 모든 요인들은 강박사고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자생성 사고는 도덕성 TAF, 가능성 TAF 요인과, 반응성 사고는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 요인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예언 2. 개념의 정의에 따라 구성된 사고-실재 융합의 9가지 하위차원은 모두 강박사고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며, 가능성 TEF, 특히 타인 TEF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자생성과 반응성 사고는 융합의 9가지 하위차원과 차별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예언 3. 걱정, 우울은 강박사고에 비해 사고-실재 융합과 낮은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나, 걱정은 우울보다는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질 것이며, 특히 대처 TEF와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질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서울 소재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49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남자가 266명, 여자가 226명이었다. 전체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21.02세(표준 편차 2.365)이었다.

도 구

사고-실재 융합척도(Thought-Reality Fusion Scale: TRFS)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개념의 정의에 따라 도덕성 사고-행위 융합, 가능성 사고-행위 융합, 자기가능성 사고-사건 융합, 타인가능성 사고-사건 융합, 자기능동반영 사고-사건 융합, 자기수동반영 사고-사건 융합, 타인반영 사고-사건 융합, 자기대처 사고-사건 융

합, 타인대처 사고-사건 융합의 9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누어진다. 문항의 내용은 4가지의 강박사고를 반영하며, 한 종류의 강박사고를 나타내는 하위차원에 2문항씩 포함되어 총 72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강박적 침투사고 질문지-단축형(ROI 단축형)

강박적 침투사고의 경험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52문항의 ROI(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 Purdon & Clark, 1994; 한국판 ROI는 이한주, 1999)에 대해서 이순희(2000)가 20문항으로 단축하여 구성한 질문지이다. 강박사고의 경험 빈도에 따라 0(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에서부터 6(하루에도 여러 차례 떠오른다)까지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ROI 단축형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를 기초로 자생성 강박사고 요인 9문항과 반응성 강박사고 요인 10문항으로 나누어지며, Cronbach α 는 각각 .85, .84이었다. 2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상관이 .80이었고, 자생성 강박사고들 간의 상관은 .77, 반응성 강박사고들 간의 상관은 .76이었다(이순희,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요 침투사고 4가지를 같은 정도로 포함하기 위하여 ROI 단축형에서 성, 공격, 오염, 확인 강박사고를 대표하는 문항을 3개씩 추출하여 전체 12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우울질문지는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 (1961)에 의해 개발된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현재 우울증상을 측정하는데 국내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Cronbach α 는 .98이며 반분 신뢰도는 .91로 보고되어 있다.

펜실베이니아 걱정증상 질문지(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

이 질문지는 Meyer, Miller, Metzger와 Borkovec (1990)이 범불안장애의 주증상인 만성적이며 통제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1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하는 경향성이 높다. Meyer 등(199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가 .91로 높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에 의해 번안된 검사를 사용하며, 이 때 번안된 척도의 Cronbach α 는 .92로 보고되어 있다.

결과 및 논의

연구 2에 참여한 참가자 492명에게서 얻어진 각 질문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 걱정 및 우울의 관계;
분석 1. TRFS의 하위요인별 분석: 요인분석에 의한 구분

표 5. 연구 2에 사용된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 도	평균	표준편차
TRFS	29.61	24.38
자생성	12.75	11.55
도덕성 TAF	2.29	2.28
가능성 TAF	1.83	2.05
가능성 TEF	2.70	2.98
반영 TEF	4.33	4.74
대처 TEF	2.87	3.36
반응성	16.87	13.79
TAF	3.78	3.49
가능성 TEF	3.46	3.56
반영 TEF	4.33	4.74
대처 TEF	5.30	4.46
ROII	13.41	8.47
자생성	5.68	4.51
반응성	7.72	5.44
BDI	6.72	6.47
PSWQ	22.42	8.20

ROII : 강박적 침투사고 질문지 단축형, TRFS: 사고-실재 융합척도, BDI: Beck 우울척도, PSWQ: 걱정증상 질문지

분석 1에서는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 걱정 및 우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고-실재 융합을 연구 1의 요인분석에 의한 자생성 5개, 반응성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와의 관계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 6에서와 같이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후에 걱정, 우울, 다른 강박사

고를 통제하고 부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응성 강박사고, 자생성 강박사고, 우울, 걱정 순으로 TRFS와의 상관이 나타났다. 예상대로 두 가지 강박사고가 TRFS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우울이 걱정보다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분 상관분석에서는 자생성 강박사고가 우울, 걱정보다 더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TRFS가 반응성 강박사고와 높은 상관($r=.50$, $p<.001$)을 가지고 자생성 강박사고가 반응성 강박사고와 상관($r=.44$, $p<.001$)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TRFS 대부분의 하위요인들은 강박사고와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도덕성 TAF의 경우에는 자생성 강박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생성 강박사고는 전반적으로 TRFS의 반응성 점수보다 자생성 점수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TRFS 자생성 점수와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생성 강박사고는 전반적으로 반응성에 비해 TRFS와 높지 않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고-실재 융합이 강박장애의 하위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하위요인들이 자생성 강박사고와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도덕성 TAF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생성 강박사고와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능성 TAF와 반영 TEF였다. 가능성 TAF와 도덕성 TAF를 관련지어 볼 때, ‘생각에 대한 죄책감’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표 6. TRFS와 ROII, PSWQ 및 BDI의 상관관계:¹⁾ 하위요인에 따라

척도	ROII 자생성	ROII 반응성	PSWQ	BDI
TRFS	.33(.09)	.50(.38)	.30(.11)	.32(.12)
자생성	.36(.16)	.45(.31)	.27(.09)	.31(.12)
도덕성 TAF	.08(-.04)	.25(.21)	.12(.04)	.12(.04)
가능성 TAF	.36(.23)	.29(.13)	.17(.02)	.27(.12)
가능성 TEF	.33(.13)	.45(.33)	.25(.08)	.28(.09)
반영 TEF	.38(.19)	.42(.26)	.27(.08)	.34(.14)
대처 TEF	.21(.08)	.28(.19)	.19(.08)	.18(.04)
반응성	.27(.01)	.51(.42)	.30(.12)	.30(.12)
TAF	.15(-.03)	.31(.24)	.20(.08)	.21(.09)
가능성 TEF	.30(.13)	.55(.46)	.31(.11)	.33(.14)
반영 TEF	.33(.08)	.51(.39)	.30(.10)	.33(.14)
대처 TEF	.14(-.04)	.36(.30)	.22(.11)	.16(.02)

1) 괄호 안의 상관계수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부분 상관계수

ROII : 강박적 침투사고 질문지 단축형, TRFS: 사고-실재 융합척도

BDI: Beck 우울척도, PSWQ: 걱정증상 질문지

굵게 표시된 숫자는 $p<.05$ 로 유의미함.

자생성 강박사고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된다. 자생성 강박사고의 주된 내용이 성과 공격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가능성 TEF, 대처 TEF 순으로 자생성 강박사고와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응성 강박사고는 TRFS의 자생성보다 반응성 점수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TRFS 반응성 점수와 관계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반응성 강박사고는 전반적으로 자생성의 경우보다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사고-실제 융합이 병리에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크게 나누어 보면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 가능성 TAF, 도덕성 TAF 순으로 반응성 강박사고와의 상관이 나타났다. 가능성 TEF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설 및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그 중요성이 자생성보다 반응성 강박사고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반영 TEF로,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이며 오염, 확인과 같은 강박증상에서 중요할 수 있겠다. 특히 확인 유형의 강박장애 환자에게서 기억과 같은 인지적 능력의 자신감이 저하된다고 주장한 Herman, Martens, Pieters와 Eelen(2003)의 연구와 관련지을 수 있다. 즉, 자신의 기억력에 대해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떠오른 침투적 생각을 사실로 믿고 확인 행동에 몰두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침투사고와 기억의 융합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결과들은 대처 TEF와 도덕성 TAF가 자생성 사고에 비해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대처 TEF는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 결과를 실제로 막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

념(Wells, 1995; 1997)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오염, 확인 강박사고의 경우에는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병에 걸리거나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신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덕성 TAF가 반응성 강박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남에게 오염이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무시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종류의 믿음이 반응성 강박증상에 있어서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양심적 태도가 지나치면 반응성 강박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사고-실제 융합을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강박사고에 대한 사고-실제 융합 각 하위요인의 고유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변인은 ROII 단축형의 점수이며, 예언변인은 앞서의 분석에서 강박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제안된 사고-실제 융합의 하위요인들이다. 먼저 ROII의 자생성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예언 변인으로 반영 TEF, 가능성 TAF, 가능성 TEF가 선택되었으나, 반영 TEF와 가능성 TEF의 상관이 너무 높아($r=.80$), ROII와 상관이 보다 낮은 가능성 TEF를 제외시켰다. 반영 TEF와 가능성 TAF는 자생성 강박사고 점수의 17%를 설명하였으며 두 예언변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ROII의 반응성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 TAF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반영 TEF와 가능성 TEF의 상관이 너무 높아($r=.88$),

ROII와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영 TEF를 제외시켰다. 그러자 가능성 TEF만이 유의수준 .001에서 반응성 강박사고 점수의 30%를 설명하였다.

사고-실재 융합과 걱정, 우울과의 관계

걱정은 TRFS에 대하여 우울과 비슷한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다(표 6). 걱정은 TRFS의 자생성, 반응성 점수와 비슷한 정도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강박사고, 우울을 통제한 부분 상관의 경우에는 TRFS 자생성 점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걱정은 TRFS 반응성 점수와는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걱정은 반응성 강박사고와 유사한 상관의 패턴을 나타내어, 가능성 TEF, 반영 TEF, 대처 TEF, TAF의 순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과 달리 대처 TEF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울의 경우에는 TRFS의 자생성과 반응성 점수와 상관의 차이가 없었으며, 자생성 강박사고와 다소 유사한 상관의 패턴을 나타내어 반영 TEF, 가능성 TEF, 가능성 TAF, 대처 TEF의 순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반응성 강박사고($r=.29, p<.001$)보다 자생성 강박사고와 더 높은 상관($r=.36, p<.001$)을 나타내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 걱정 및 우울의 관계:
분석 2. TRFS의 9개 하위차원별 분석: 개념의 정의에 따른 구분

분석 2에서는 분석 1의 결과를 보완하고 좀 더 세밀한 설명을 위해, 사고-실재융합을 각 하위개념의 정의에 따라 구분한 9개의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강박사고, 걱정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1과 유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와의 관계

TRFS의 각 하위차원과 ROII 점수와의 상관의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앞과 마찬가지로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후에는 우울, 걱정이나 다른 강박사고를 통제하고 부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ROII 총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 가능성 TEF와 반영 TEF에서는 타인 융합보다는 자기 융합이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융합은 타인 융합에 비해 덜 비현실적이며 망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충족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참가자들이 임상집단이 아닌 대학생 집단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타인 융합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반응성 강박사고의 경우에는 TRFS의 반응성 차원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자기가능성 TEF가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타인가능성 TEF보다 자기가능성 TEF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관이 높은 것은 반영 TEF인데,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자기’와 관련된 반영 TEF 중에서 ‘능동’의 사고보다 ‘수동’의 사고가 더 상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보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염, 확인과 관련된 강박사고에서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반영 TEF와 대처 TEF 역시 모두 ‘자기’에 관한 융합이 ‘타인’에 관한 것보다 더 반응성 사고의 점수와 연관성이 높았다. 그리고 가능성 TEF와 대처 TEF에 있어서, 자

표 7. TRFS와 ROII, PSWQ, 및 BDI와의 상관관계¹⁾: 9개의 하위차원

	ROII 총점	ROII 자생성	ROII 반응성	PSWQ	BDI
TRFS	.50(.41)	.33(.09)	.50(.38)	.30(.11)	.32(.12)
자생성	.48(.40)	.36(.16)	.45(.31)	.27(.09)	.31(.12)
반응성	.47(.39)	.27(.01)	.51(.42)	.30(.12)	.30(.12)
도덕성 TAF	.24(.19)	.08(-.04)	.26(.22)	.15(.04)	.15(.06)
가능성 TAF	.38(.29)	.36(.23)	.30(.21)	.23(.07)	.29(.13)
자기가능성 TEF	.51(.43)	.31(.09)	.53(.44)	.30(.10)	.32(.13)
타인가능성 TEF	.48(.41)	.31(.14)	.51(.41)	.27(.08)	.30(.11)
자기능동반영 TEF	.49(.40)	.36(.18)	.43(.31)	.30(.11)	.34(.14)
자기수동반영 TEF	.50(.42)	.35(.17)	.51(.41)	.30(.10)	.34(.15)
타인반영 TEF	.45(.36)	.30(.14)	.45(.33)	.24(.06)	.30(.13)
자기대처 TEF	.31(.26)	.17(.03)	.37(.33)	.22(.11)	.16(.02)
타인대처 TEF	.31(.25)	.23(.12)	.31(.25)	.21(.09)	.18(.03)

1) 괄호 안의 상관계수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부분 상관계수

TRFS: 사고-실재 융합척도, ROII : 강박적 침투사고 질문지 단축형

BDI: Beck 우울척도, PSWQ: 걱정증상 질문지

굵게 표시된 숫자는 $p < .05$ 로 유의미함.

생성은 타인 융합과, 반응성 강박사고는 자기 융합과 더 높은 상관이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타인 융합은 자기 융합보다 더 비현실적이며 합리성이 떨어지는데, 자생성에서 타인 융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생성 강박이 분열형이나 정신증적 특성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고-행위 융합과 사고-사건 융합을 포함하는 개념인 사고-실재 융합과 강박사고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강박장애를 침투사고의 속성에 따라 구분한 Lee와 Kwon(2003)의 자생성 및 반응성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강박사고를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두 가지 융합의 개념과 하위 차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고-실재 융합척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높은 신뢰도와 공준타당도를 나타내었고, 자생성과 반응성의 차원에서 각각 5개와 4개의 하위요인이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사고-실재 융합의 하위차원들과 자생성 및 반응성 강박사고들 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자생성과 반응성 강박사고가 사고-실

재 융합과 가지는 관련성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행위 융합에서의 차이로, 자생성 강박사고의 경우에는 도덕성 TAF와는 상관이 없고 가능성 TAF와는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반면에 반응성은 도덕성 TAF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고 가능성 TAF는 다른 하위차원들에 비해 낮은 상관을 가진다. 이는 자생성 유형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대로 행동할까봐 두려워서 생각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유형이고, 반응성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확인하는 소심하고 지나치게 양심적인 유형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자생성 강박사고는 반영 TEF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반응성은 가능성 TEF가 더 높게 나타난다. 두 개념을 시제로 구분하면, 가능성 TEF는 미래에 관한 것이고 반영 TEF는 과거나 현재에 관한 것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침투사고 내용의 시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자생성 강박사고는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을 보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 아닌가?’하는 현재나 과거에 대한 불안이, 반응성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앞으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거야’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처 TEF에서의 차이이다. 자생성보다 반응성 사고에서 대처 TEF가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 대처 TEF는 ‘사고가 현실의 부정적 결과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믿음’으로 긍정 융합과 걱정과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오염, 확인과 관련된 침투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는 것이 질병이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 공격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억누르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회피방략이 나타난다는 이한주

(1999)의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반응성 강박사고가 걱정과 관련이 있다는 민병배(2000)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넷째로, 자기 융합과 타인 융합에서의 차이이다. 가능성 TEF, 대처 TEF에서 자생성 강박사고는 타인 융합과, 반응성은 자기 융합과 더 관련이 높았다. 타인 융합이 더 비합리적이며, 마술적 사고, 망상 등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생성 강박사고가 분열형 특성이나 정신증적 특성과 더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성 강박사고가 사고-실재 융합이라는 신념으로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면 자생성 강박사고는 이보다 더 병리적인 마술적 사고, 망상 등으로 더 설명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능동 융합과 수동 융합의 차이이다. 자기반영 TEF에서 자생성에서는 능동과 수동 융합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반응성에서는 수동 융합이 더 상관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반응성 강박사고는 남이나 환경에게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당하는 수동적인 사건에 대한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 강박사고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사고-실재 융합의 하위차원들이 강박사고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강박장애가 사고-실재 융합이라는 인지적 평가로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능성 TEF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Amir et al., 2001; Muris, Meesters, Rassin, Merckelbach, & Campbell, 2001; Rassin et al., 2001; Abramowitz et al., 2003). 그러나 타인가능성 융합이 자기가능성 융합보다 병리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들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집단이 아닌 대학생 집단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며, 실제 강박장애 환자들에게서는 타인가능성 융합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반영 TEF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믿음’으로, Herman 등(2003)이 주장한 기억과 관련된 인지적 자신감의 부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능성 TAF, 대처 TEF, 도덕성 TAF 순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도덕성 TAF는 강박사고와 걱정, 우울의 모든 병리와 관련하여 가장 낮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걱정과 우울은 강박사고에 비해서 사고-실재 융합과의 관련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걱정은 반응성 강박사고와 우울은 자생성 강박사고와 좀 더 유사한 상관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두 가지 융합은 강박장애와 관련되어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서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졌고 연구자 간 개념의 정의조차 일치하지 않았고 하위차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념과 하위차원을 명확히 하고 각 개념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강박사고의 주요 4가지 내용을 반영하여 강박장애와 두 개념과의 연관성을 더 적합하고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Lee와 Kwon(2003)이 제안한 자생성 및 반응성 모형을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이라는 인지적 평가 차원에서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이 모형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순희, 2000; 설순호, 2004; Lee & Kwon,

2003; Le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강박사고의 하위유형에 따라 사고-행위 및 사고-사건 융합의 하위차원들이 차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강박장애 하위유형 구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는 ‘통제의 대상’의 기준이다. 강박장애에서 침투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병리에 있어 매우 핵심적이며, 통제노력의 대상은 두 가지 즉, 자신과 주변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생성 사고가 가능성 TAF와 가지는 관련성에서 보듯이, 성과 공격에 대한 강박사고는 주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염, 확인의 경우에는 가능성 TEF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자신이 오염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주변 환경이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준은 ‘능동 또는 수동’의 기준이다. 같은 속성의 침투사고라도 그 내용이 능동적인 것인지, 수동적인 것인지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똑같은 성적인 사고가 떠오르더라도 ‘내가 남을 강간하려는 생각’과 ‘남에게 강간을 당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른 강박행동을 나타낼 것이다. 즉, 전자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회피하거나 없애려 할 것이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문단속, 귀가시간 지키기 등과 같은 확인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사고 내용의 시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과,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로 여기는 것은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사건의 논리적인 연결성과 개연성에 관한 오류이고 후자는 기억에 대한 인지적인 자신감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오류의 문제 대 양심적 태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확인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가스불을 끈 기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 주된 동기인 경우와, 내가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 주된 동기인 경우는 증상의 기제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민병배 (2000). 강박사고와 걱정: 침투사고 대처 과정 및 관련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설순호 (2004). 걱정과 강박사고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통제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희 (2000). 도덕적, 인과적 책임감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강박증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신민섭 (2004). 사고행동융합이 강박장애 특수적인 인지왜곡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용승 (2000). 강박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호 (2005). 불완전감과 강박증상 및 성격요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균 (1994). 한국정신장애의 역학적 조사연구(XIII) - 강박장애의 유병률. 신경정신의학, 33(1), 5-17
- 이한주 (1999). 자생성 강박사고와 반응성 강박사고에 대한 평가와 통제방략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ramowitz, J. S., Whiteside, S., Kalsy, S., & Tolin, D. F. (2003). Thought control strategie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529-540.
- Abramowitz, J. S., Whiteside, S., Lynam, D., Kalsy, S. (2003). Is thought-action fusion specific to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mediating role of negative affec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069-107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ir, N., Freshman, M., Ramsey, B., Neary, E., & Bridigi, B. (2001). Thought-action fusion in individuals with OCD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765-776.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rle, D., Starcevic, V. (2005). Thought-action fusion: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 263-284.
- Burns, G. L., Keortge, S. G., Formea, G. M., & Sternberger, L. G. (1996). Revision of the Padua Inventory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symptoms: distinctions between worry, obsessions, and compul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163-173.
- Calamari, J. E., Wiegartz, P. S., & Janack, A. S. (1999).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ubgroups: a symptom clustering approach.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113-125.

- Calamari, J. E., Wiegartz, P. S., Riemann, B. C., Cohen, R. J., Greer, A., Jacobi, D. M., Jahn, S. C., & Carmin, C. (2004).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ubtypes: An attempted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a symptom-based taxonom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647-670.
- Coles, M. E., Meinnin, D. S., & Heimberg, R. G. (2001). Distinguishing obsessive factors and worries; the role of thought-action fu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947-959.
- Coles, M. E., Frost, R. O., Heimberg, R. G., & Rheaume, J. (2003). "Not just right experiences": perfectionism, obsessive-compulsive features and general psychopath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681-700.
- Gwillian, P., Wells, A., & Cartwright-Hatton, S. (2004). Does meta-cognition or responsibility predict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 test of the metacognitive model.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1, 137-144.
- Hout, M., Kindt, M., Weiland, T., Peters, M. (2002). Instructed neutralization, spontaneous neutralization and prevented neutralization after an obsession-like thought.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3, 177-189.
- Lee, H. J., Cogle, J. R., & Telch, M. J. (2005). Thought-action fusion and its relationship to schizotypy and OCD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 29-41.
- Myers, S., Wells, A. (2004).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the contribution of metacognitions and responsibility. *Anxiety Disorders*, (in press).
- Mckay, D., Abramowitz, J. S., Calamari, J. E., Kyrios, M., Radomsky, A., Sookman, D., Taylor, S., & Wilhelm, S. (2004). A critical evaluation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ubtypes: Symptoms versus mechanis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283-313.
- Muris, P., Meesters, C., Rassin, E., Merckelbach, H., & Campbell, J. (2001). Thought-action fusion and anxiety disorders symptoms on normal adolescents. *Behaviour Therapy*, 39, 843-852.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1997). Cognitive assessment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 667-681.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200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the Interpretations Of Intrusions Inventor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987-1005.
-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2003).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 and Interpretations Of Intrusions Inventory: Part I.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863-878.
- O'Conner, K., & Robillard, S. (1995). Inference proces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some clinical Observ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887-896.
- Rachman, S. (1993). Obsessions, responsibility, and guil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 149-154.

- Rachman, S. (1997).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11-314.
- Rachman, S. (1998). A cognitive theory of obsessions: Elabor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385-401.
- Rachman, S. (2002). A cognitive theory of compulsive check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625-539.
- Rachman, S., Shafran, R., Mitchell, D., Trant, J., & Teachman, B. (1996). How to remain neutral: An experimental analysis of neutraliz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779-784.
- Rassin, E., Diepstraten, P., Merckelbach, H., & Muris, P. (2001). Thought-action fusion and thought suppres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757-764.
- Rassin, E., Merckelbach, H., Muris, P., & Spaan, V. (1999). Thought-action fusion as a causal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ntr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231-237.
- Salkovskis, P. M. (1985). Obsessional-compulsive problems: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571-583.
- Salkovskis, P. M. (1999). Understanding and treating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S29-S52.
- Shafran, R., Rachman, S. (2004). Thought-action fusion: a review.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5, 87-107.
- Shafran, R., Thordarson, D. S., & Rachman, S. (1996). Thought-action fu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0, 379-391.
- Summerfeldt, L. J., Richter, M. A., Antony, M. M., & Swinson, R. P. (1999). Symptom structur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297-311.
- Wells, A. (2000). *Cognitive Therapy of Anxiety Disorder: a Practice Manual and Conceptual Guide*. Chichester: Wiley.
- Wells, A., & Butler, G. (199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David, M., & Fairburn, C. G. (Eds.), *Science and practice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pp. 156-17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Zucker, B. G., Craske, M. G., Barrios, V., & Holguin, M. (2002). Thought action fusion: Can it be corrected?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653-664.

원고접수일 : 2007. 11. 24.

게재결정일 : 2008. 1. 24.

Differences of Two Subtypes of Obsessions in TAF and TEF

Ki-Wha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Campus life & Culture

Min-Sup Shi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hought-action fusion(TAF) and thought-event fusion(TEF) to obsessions. Study 1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Thought-Reality Fusion Scale(TRFS) which can measure TAF and TEF.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19 college students.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TRFS was found to have five factors in autogenous thoughts, while four factors in reactive thoughts. And the TRFS was found to have concurrent validity. In study 2, how TRF is differently related to autogenous/ reactive obsessions or worry and depression was examined. 492 college students were given to answer to the TRFS, Revised Obsessional Intrusions inventory(ROII),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PSWQ). Obsessio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ll the factors of TRFS. Over all factors, reactive obsessions were more related to TAF and TEF than autogenous obsessions were. Autogenous obsession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likelihood TAF, reflection TEF, likelihood TEF and prevention TEF in the order, while they showed in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oral TAF. On the other hand, reactive obsession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likelihood TEF, reflection TEF, prevention TEF, likelihood TAF and moral TAF in the order. Worry and depression were less related to TRFS than obsessions.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nd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thought-action fusion, thought-event fusion, Thought-Reality Fusion Scale,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obsession, autogenous/reactive obsessions